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동물 맞이 준비와 건강관리 [요약]

2023년 6월

황원경 | 이신애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증가했고, 20~30대 젊은 반려인들이 유기동물 입양을 견인하고 있다.

■ 2022년 말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은 1,262만 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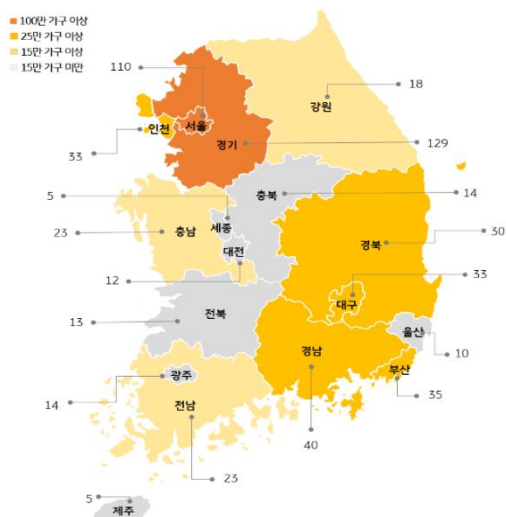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지난 2020년 말의 536만 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을 보면, 서울 110만 가구, 경기 129만 가구, 인천 33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가 7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묘가구'가 27.1%였다. 반려견가구는 지난 조사인 2020년 말 74.6%인 것에 비해 3.2%p 감소한 반면 반려묘가구는 2020년 말 25.2%였던 것에 비해 1.9%p 증가했다.

■ 한국인이 많이 기르는 반려견 Top1은 몰티즈, 반려묘는 코리안숏헤어

반려견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25.9%)였고 뒤이어 푸들(21.4%), 믹스견(20.3%), 포메라니안(10.3%), 진돗개(5.6%), 시추(5.6%), 비송 프리제(4.5%) 순이었다. 올해 6위인 시추는 2018년 3위에서 3계단 하락한 반면 올해 3위를 차지한 믹스견은 2018년 6위, 2021년 4위에서 상승했다. 믹스견에는 어떤 품종들이 교배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한 '몰티푸'(몰티즈+푸들), '코카푸'(코커스패니얼+푸들), '폼피츠'(포메라니안+스피츠) 등이 있다.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가 62.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의 순이었다. 코리안숏헤어 양육 가구의 절반 이상이 유기묘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반려가구현황 [단위: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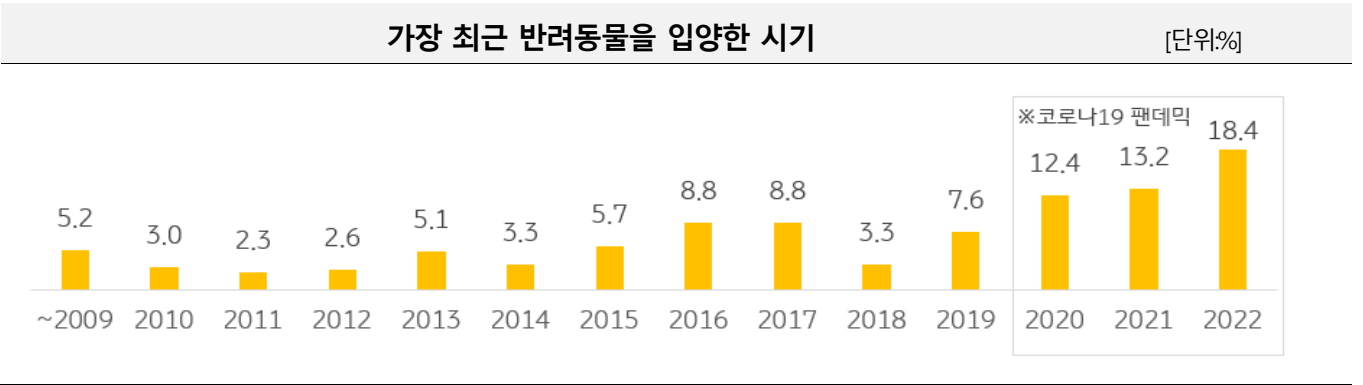
반려견과 반려묘 품종(Top 7) [단위:%]

반려견	반려묘
몰티즈 (25.9)	코리안숏헤어 (62.1)
푸들 (21.4)	페르시안 (15.0)
믹스견 (20.3)	잘 모르겠다 (12.5)
포메라니안 (10.3)	러시안블루 (11.9)
진돗개 (5.6)	삼 (9.8)
시추 (5.6)	터키쉬앙고라 (8.3)
비송 프리제 (4.5)	스코티쉬폴드 (6.4)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입양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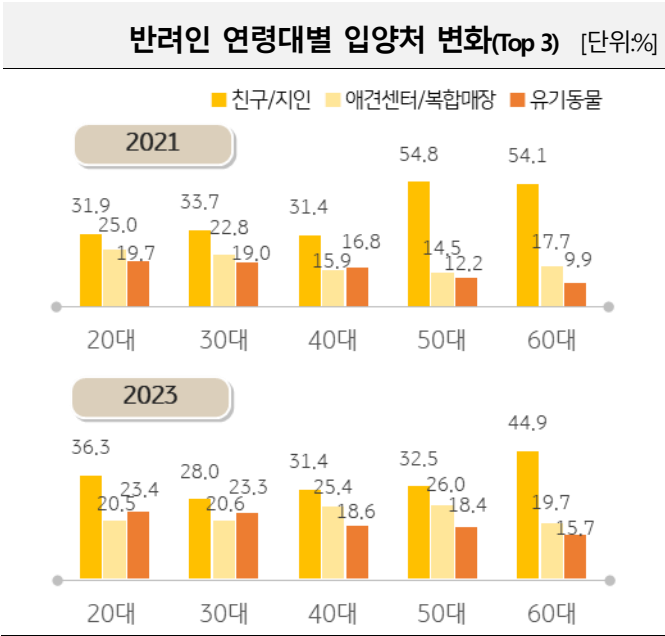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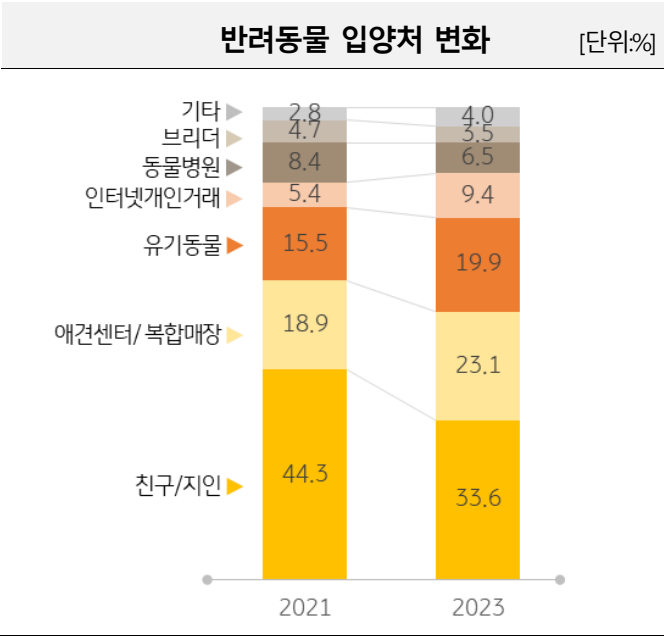
20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재택근무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이 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를 파악해 보았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입양한 가구의 비중은 2019년 이전에 입양한 가구에 비해

많았다. 2019년 이전에는 가장 많은 해인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8.8%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12.4%, 2021년 13.2%, 2022년 18.4%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입양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은 가운데, 20~30대 반려인 사이에서 유기동물 입양 증가

반려견과 반려묘의 입양 채널은 '친구/지인'(33.6%)이 가장 많고, '애견센터/반려동물복합매장'(23.1%),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19.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연령대별로 입양 채널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애견센터/복합매장'이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20~30대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가 2위로 나타났다. 20대 중 23.4%, 30대 중 23.3%가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기른다고 응답하여 지난 조사에서 3위(각각 19.7%, 19.0%)였던 것에 비해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20~30대 사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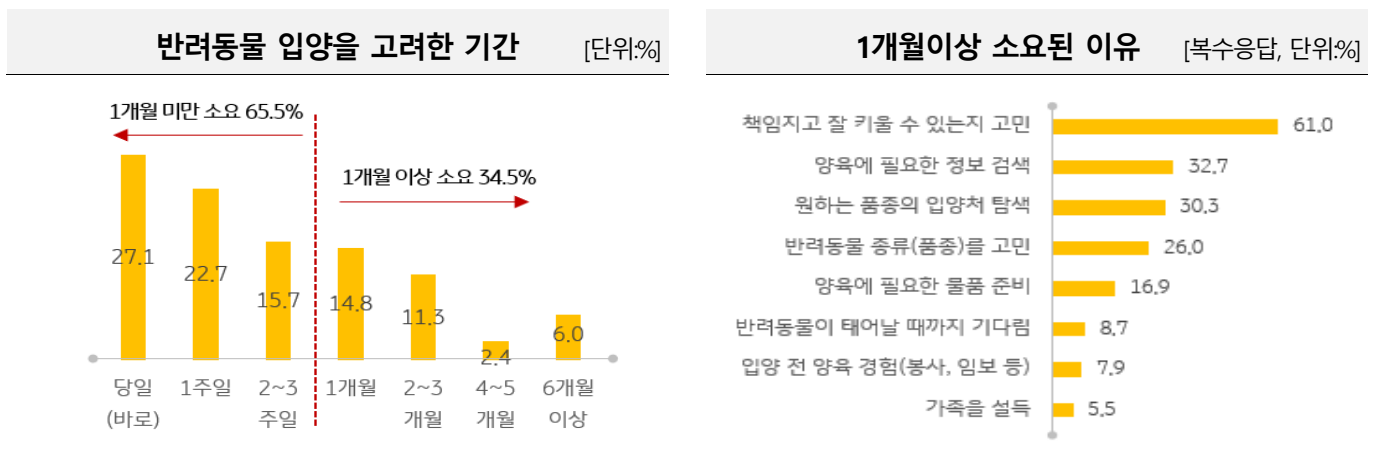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입양에서부터 양육,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으로 관리하여 점차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성숙시켜 가고 있다.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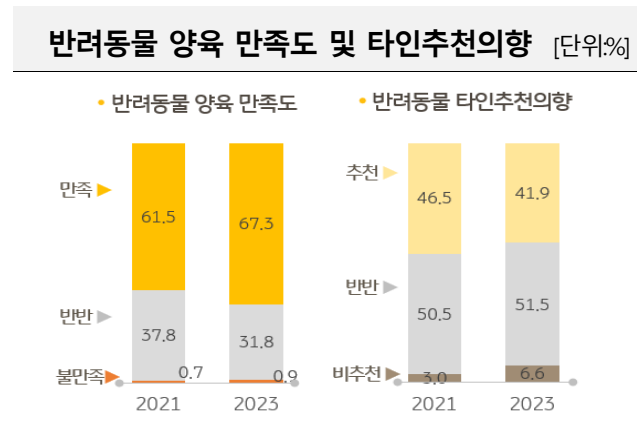
■ '당일에 바로' 입양한 27.1%를 포함하여 1개월 이내 입양을 결정한 경우가 65.5%,
'1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한 34.5%의 반려가구가 고민한 이유는 '양육에 대한 책임감' 때문

반려가구가 입양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고민하여 입양을 준비하는지 준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눈에 마음에 들어 '당일에 바로' 입양을 결정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 정도'(22.7%), '2~3주일 정도'(13.0%) 생각했다는 순이었다. 입양을 결정하는데 '1개월 이상' 생각했다고 응답한 반려가구는 34.5%로 3분의 1 정도가 입양을 결정하는데 1개월 이상 걸렸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하기 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요한 이유는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에 필요한 정보 검색'(32.7%), '원하는 품종의 입양처 탐색'(30.3%), '반려동물 종류(품종)'(26.0%)를 고민했다.



■ 반려가구의 67.3%는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
반면 타인추천의향은 41.9%로 양육 책임감이 커지며 타인추천의향 감소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만족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전체의 67.3%로, 이는 지난 2021년 조사(61.5%) 대비 5.8%p 증가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 중 41.9%가 '추천하겠다'고 응답해 2021년 46.5%에 비해 4.6%p 감소했다. 반려가구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커지면서 타인추천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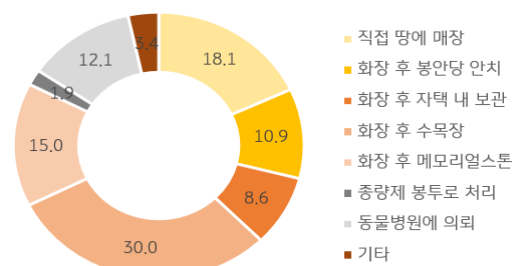


■ 반려동물 장례 방법으로 과거 '직접 매장'보다 향후 장례절차를 고려하는 반려가구 증가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맞이했던 반려가구의 58.7%는 반려동물을 '직접 땅에 매장'했고, '화장 후 수목장'(12.2%)이나 '자택 내 보관'(9.2%), '메모리얼스톤'(4.6%), '봉안당에 안치'(3.5%) 등 화장의 장례절차를

향후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반려가구의 생각에는 큰 차이를 보여, 반려가구 중 64.5%는 '화장 후 수목장'(30.0%)이나 '메모리얼스톤'(15.0%), '봉안당에 안치'(10.9%), '자택 내 보관'(8.6%) 등 화장의 장례절차를 생각하고 있었다. '직접 땅에 매장'하겠다는 응답은 18.1%로 크게 감소했다.

향후 예상하는 장례 방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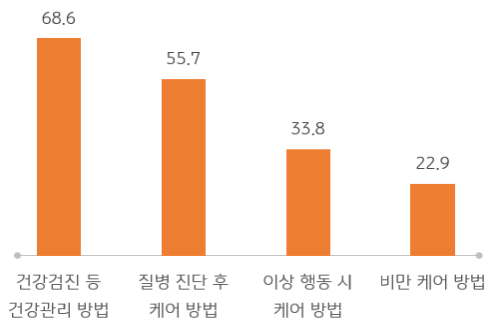
가족인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반려가구의 니즈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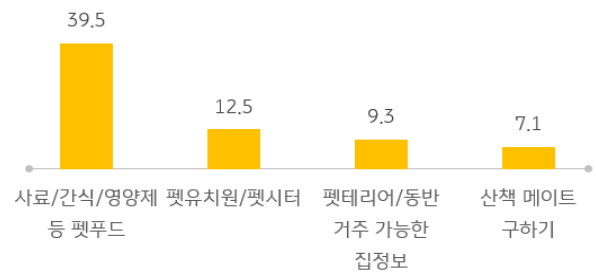
반려가구 중 86.4%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이었고, 다음으로는 반려동물의 식사나 거주환경 등 '양육관련' 관심도가 38.8%로 1위와는 격차가 있는 두번째 이슈였다.

'건강관리관련' 관심사 중에는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68.6%)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양육관련' 관심사 중에는 '사료나 간식, 영양제 등 펫푸드'로 39.5%가 관심이 있었다. 펫푸드 외에 '반려동물 보육을 위한 펫유치원/펫시터'(12.5%)에 대한 관심사가 2순위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건강관련 관심사 [1+2+3순위, 단위:%]



반려동물 양육관련 관심사 [1+2+3순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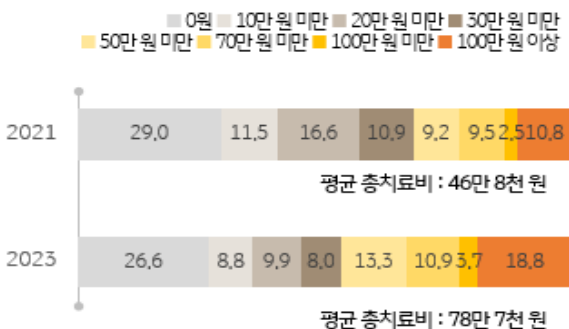
■ 지난 2년간 반려가구 중 73.4%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지출한 경험 보유,

정기검진이나 X-ray, CT, 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 검진' 지출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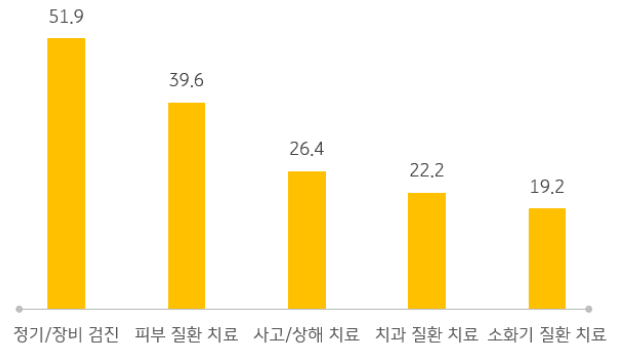
반려가구 중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의 진료나 사고, 상해, 치료 등을 위해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73.4%였고, 2021년 71.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치료비를 지출했던 반려가구는 평균 78만 7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46만 8천 원에 비해 31만 9천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항목은 '정기 검진이나 장비를 사용한 검진'이 51.9%로 가장 많았고, '피부 질환 치료'가 39.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사고/상해 치료'(26.4%), '치과 질환 치료'(22.2%), '소화기 질환 치료'(19.2%)의 순으로 치료비를 지출했다.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총치료비 [단위:%]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처(Top 5)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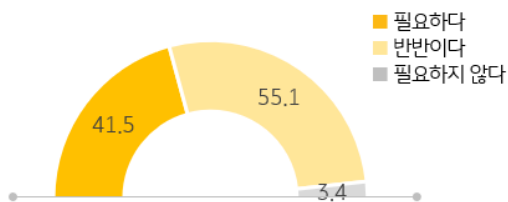


■ 반려가구의 41.5%가 반려동물을 위한 원격의료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48.8%는 이용의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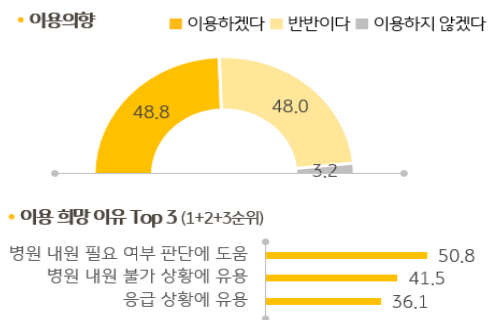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수의사와 1대 1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원격의료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41.5%로 나타났다. 국내 일부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대상 원격의료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는 13.9%에 불과했다. 반려가구의 48.8%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실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 가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유용할거 같아서'(50.8%)였다.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반려동물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반려동물 건강에 대해 온라인 1:1 텍스트 채팅으로 수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이용 의향 및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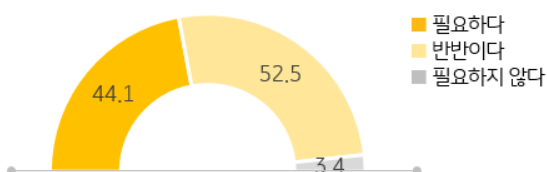
■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반려가구는 43.2%,
원격진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반려가구는 36.4%

수의사와의 온라인 화상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4.1%였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43.2%가 '이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의향이 '반반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4.0%로 서비스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는 원격화상진료와 이를 통해 약 처방과 약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해 반려동물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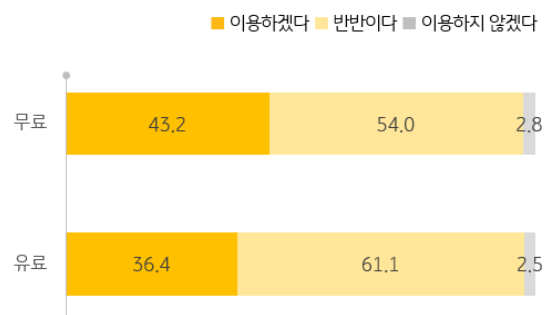
유료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는 36.4%였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좀더 건강하고 잘 양육하려는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볼만한 시기라 판단된다.

원격진료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 수의사와의 화상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서비스로 약 처방과 약 배달까지 가능
현재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해 불가, 법 개정 시 가능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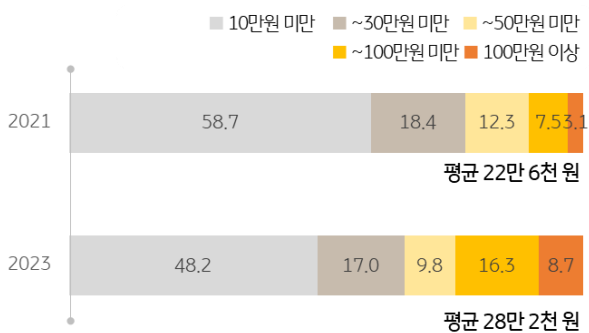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기르면서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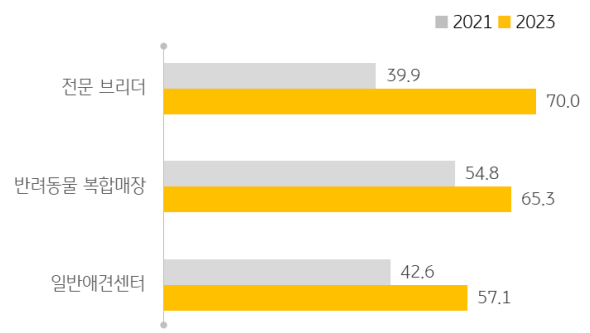
■ 반려동물 분양비는 1마리 평균 28만 2천원으로 2021년 대비 5만 6천 원 증가, '전문 브리더', '반려동물 복합매장', '일반애견센터'를 통해 입양하며 분양비 증가

2023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지출하는 분양비는 평균 28만 2천 원으로 지난 2021년 22만 6천 원에 비해 5만 6천 원이 증가했다. 분양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반려견 분양비용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반려견의 분양비가 평균 31만 원으로 지난 2021년 23만 4천 원에 비해 6만 6천 원이나 증가했고, 반려묘의 경우 올해 20만 3천 원으로 지난 2021년(20만 3천 원)과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 또한, 입양비의 증가는 입양채널 중 '전문 브리더'와 '반려동물 복합매장', '일반애견센터'를 통한 입양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의 영향도 있다. 분양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은 2021년 39만 9천 원에서 올해 70만 원으로 30만 1천 원이나 증가했고, '일반애견센터'도 지난 조사 대비 14만 5천 원이나 늘었다.

최근 입양한 반려동물 분양 비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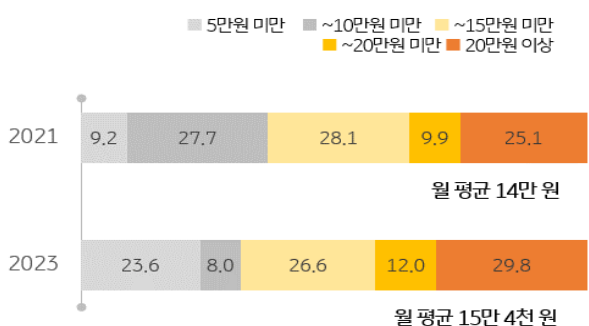
입양채널별 분양비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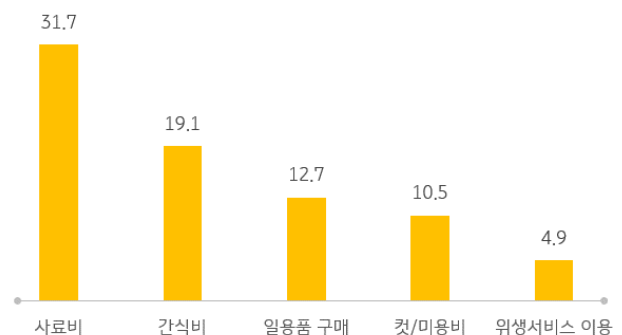
■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 15만 4천 원 지출, '사료비'와 '간식비' 등 식비 관련 지출이 절반을 차지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관련 건강관리, 상해나 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매월 고정적인 양육비로 '평균 15만 4천 원'을 지출했다. 이는 2021년 14만 원에 비해 1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로 31.7%, 다음은 '간식비'로 19.1%를 지출하여 식비 관련 지출(50.8%)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배변 패드, 고양이 모래, 미용용품이나 위생용품 등 '일용품 구입비'(12.7%), '컷/미용비'(10.5%)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월 양육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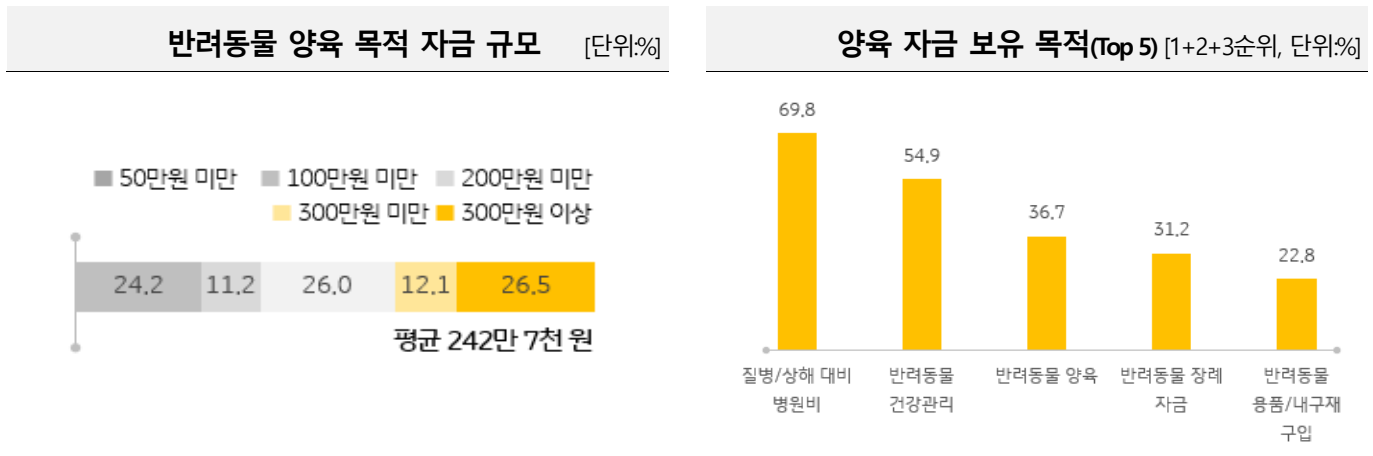


월 양육비의 지출처(Top 5)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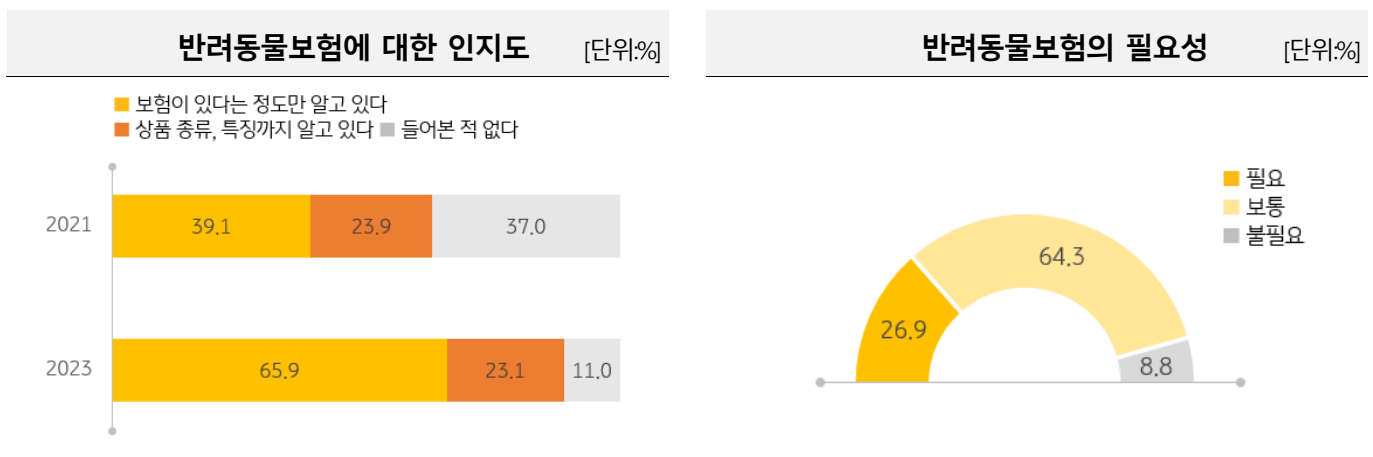
■ 반려가구 중 21.5%만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금을 운용 중, 평균 242만 7천 원을 보유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분양비에서부터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여러 측면에서 비용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실제 반려가구의 21.5%만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별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구의 자금 규모는 평균 242만 7천 원이었고 이들이 전용 자금을 관리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의 목적이 69.8%로 가장 많고, '반려동물 건강관리'(54.9%)를 위해 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 '반려동물 양육'(36.7%)이나 '반려동물 장례'(31.2%)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었다.



■ 89%의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가입한 반려가구는 11.9%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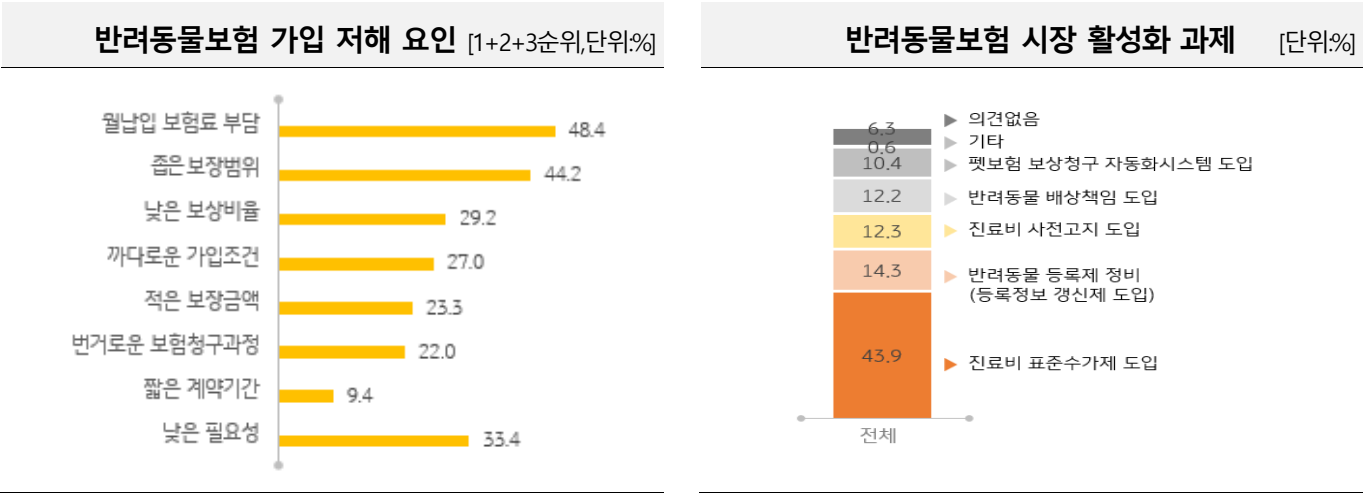
반려가구의 23.1%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종류나 특징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도 65.9%로 이전 조사결과(2021년 39.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11.0%로 2021년 37.0%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반려가구들의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11.9%로 매우 저조했다. 낮은 가입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반려가구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그리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26.9%였고, '반반이다'라는 응답은 64.3%였다.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월 납입 보험료 부담', 시장 활성화 과제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가장 크게 꼽음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가구에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한 결과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범위가 좁다'(44.2%)는 점이 가장 많았다. 반려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보험의 필요성과 가입률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할지를 반려가구에게 질문해 보았다. 반려가구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3.9%)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 도입 등 제도 정비'로 14.3%가 응답하여 1위와는 격차가 있었다.



반려가구는 가족을 맞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기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충분한 맞이 준비가 필요함을 예비 반려가구에게 전하고 있다.

■ 반려가구 중 73.1%는 입양 전 반려동물 양육관련 정보를 탐색하며 준비, 실제 양육을 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

반려가구 중 입양 전 정보를 탐색한 가구는 73.1%였다. 입양 전에 가장 많이 본 정보는 '양육 시 주의사항'(53.2%)과 '먹이 및 간식 정보'(51.4%)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찾아 보았다. 이외 '필요 반려동물 용품'(47.7%), '건강관리 방법'(46.0%), '훈련 및 훈육 방법'(41.7%), '품종별 특징'(40.1%)의 정보를 많이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을 하면서 반려인들이 겪은 어려움은 다양했다. 반려인이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은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이나 출근'(41.5%)하는 경우였다.

입양 전 탐색한 정보 내용 [복수응답, 단위:%]



입양 초기 어려운 점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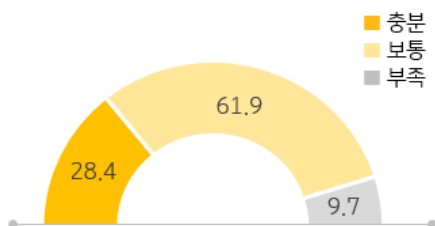


■ 반려인들 중 입양 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한 경우는 28.4%, 실제 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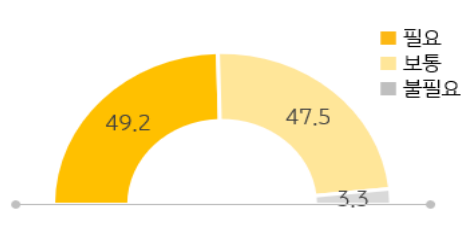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양육을 위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 반려가구의 28.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보통이었다'고 생각했고, '부족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9.7%였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반려인 자격시험의 도입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반려인 중 49.2%가 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는 경우가 47.5%였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사전준비를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인 자격시험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행동 유형을 알고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알아보는 시험으로,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입양 준비 정도 인식 [단위:%]



국내 반려인 자격시험 도입 필요성 [단위:%]



주로 실내에서 독립적 생활하고 야행성의 특성이 있는 반려묘는 건강한 양육을 위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 반려묘가구는 약 149만 가구로 반려가구의 27.1%를 차지하며, 2020년 말 대비 1.9%p 증가했다. 향후 기르고자 하는 반려동물 중 반려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반려견에 대한 정보에 비해 반려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 반려묘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반려묘 양육 정보는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이 중 ‘청결한 화장실 모래 상태 유지’가 특히 중요

반려묘가구가 반려묘를 기르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방법’으로 28.4%가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건강 체크법’(27.8%), ‘나이별 주의할 질병/질환’(26.9%), ‘건강관리/식단/사료’(26.6%) 등의 순이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반려묘에게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반려묘에게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꼽아보니, 화장실, 숨는공간, 수면공간, 놀이공간, 식사공간 등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반려묘가구의 60.2%가 ‘청결한 화장실 모래 상태’를 꼽았고, 다음으로 ‘방마다 배치된 숨을 공간’(45.9%),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41.9%), ‘캣타워 내 쉼터’(40.4%)의 순이었다. 반려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배변 공간’으로서 반려묘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야행성이 있는 반려묘에게 ‘숨는 공간’은 수면 공간보다 중요했다.

반려묘 양육에 필요한 정보 [복수응답, 단위:%]



반려묘에 중요한 주거 환경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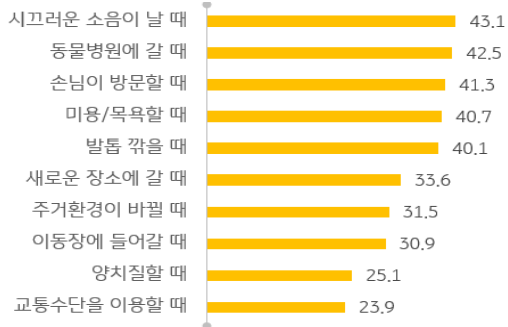
■ 반려묘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소음에 노출’되거나 ‘외출’,

반려인은 반려묘의 식사량이나 배변 횟수/양의 변화로 스트레스 정도를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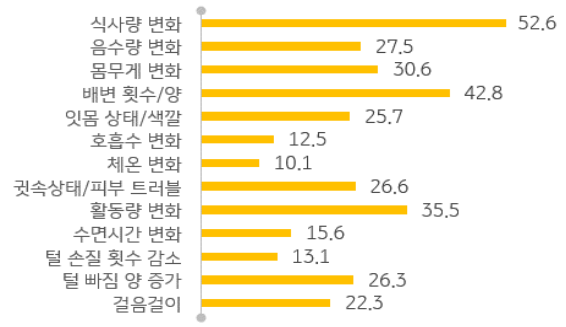
반려묘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반려묘에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반려묘가구의 94.5%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리에 민감하여 ‘시끄러운 소음이 날때’(43.1%)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거주공간을 벗어나 ‘동물병원에 갈 때’(42.5%)였다.

반려인이 이러한 반려묘의 스트레스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은 ‘식사량 변화’를 통해서로 반려묘가구의 52.6%가 이 방법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했다. ‘배변 횟수/양’(42.8%), ‘활동량 변화’(35.5%), ‘몸무게 변화’(30.6%)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려묘의 스트레스 유발 상황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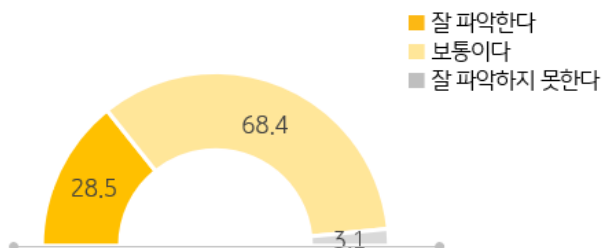
반려묘 스트레스 체크 포인트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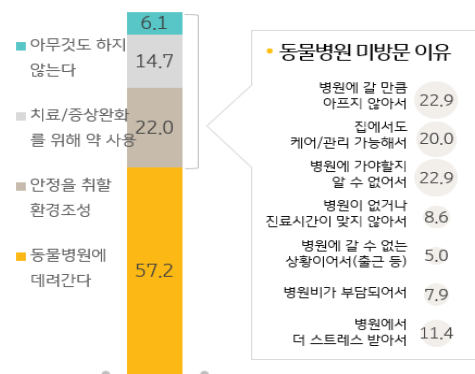
■ 평소 반려묘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는 28.5%에 불과, 건강 악화를 알았을 때 절반 정도는 자가 조치를 함

반려묘가구 중 28.5%만이 반려묘의 '스트레스나 건강악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묘가 아픈 상황이 나타났을 때 반려인들의 57.2%는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 응답했으나, 42.8%는 자가진단을 통해 '안정을 취할 환경을 조성'(22.0%)하거나, '치료/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사용'(14.7%),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6.1%)의 조치를 취했다. 반려인이 바로 동물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아서'와 '병원에 가야할지 알 수 없어서'가 각각 2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려묘의 건강악화 파악 정도 [단위:%]







반려묘 건강악화 시 대응법 [단위:%]







▣ 설문조사 개요






■ (본조사) 정량조사 개요

	조사대상	반려동물 전체 시장현황 분석용	반려동물 양육 세부현황 분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가구내 금융의사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반려동물을 양육중인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가구내 금융의사 결정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Mobile Survey	
	표본추출방법	지역/가구주연령/성별/가구구성을 고려한 Quota sampling	
	표본구성	반려동물 전체 시장 분석용 2000명, 반려가구 양육현황 분석용 1000명	
	조사기간	2023년 2월 15일 ~ 2023년 2월 27일 (13일간)	

■ (이슈조사) 정량조사 개요

	조사대상	반려동물 전체 시장현황 분석용	반려동물 양육 세부현황 분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가구내 금융의사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반려동물을 양육중인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가구내 금융의사 결정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Mobile Survey	
	표본추출방법	지역/가구주연령/성별/가구구성을 고려한 Quota sampling	
	표본구성	반려가구 양육현황 분석용 1000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8일 ~ 2023년 5월 3일 (6일간)	

■ 정성조사 개요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근 2년 이내 생애 첫 반려견 또는 반려묘 입양자- 가구 자산관리 의사결정 관여자 & 반려동물 양육 의사결정자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FGD (Focused Group Discussion)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판단표본추출 (Judgment Sampling)- 사전 전화면접/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적합성 확인 후 선정
	표본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4그룹, 총 22명- 그룹 1 : 소형견 양육가구 (6명)- 그룹 2 : 중·대형견양육가구 / 반려견 입양 전 정보 탐색자 (6명)- 그룹 3 : 유기견 양육가구 (5명)- 그룹 4 : 반려묘 양육가구 (5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년 3월 21일 ~ 4월 5일